



여의도연구원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73 우성빌딩 3층 팩스 02-6288-0536 담당 : 김신의 연구원(02-6288-0535)
박성중 의원실 : blog.naver.com/sjpark580801 담당 : 김재현 비서관(788-2916, 784-4364~6)

- 문재인 대통령·조국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 -

언론이 본 문 대통령, "북한" 네티즌이 본 문 대통령, "문재앙" 국민이 본 조국, "사퇴"

- 여의도연구원(이사장 황교안, 원장 국회의원 김세연), 국회의원 박성중(서초을) 공동연구
- 지난 15개월(2018.05.01.~2019.07.31) 문재인 대통령 언급된 뉴스 기사 60만 건 전수 분석 결과 뉴스 헤드라인 키워드 Top100 중 43%가 '북한' 이슈, '경제'는 13%에 그침
- 댓글 4천2백만 건 빅데이터 결과, 부정 키워드 비율 69.9% 차지, 文대통령 지칭어 1위 '문재앙'
- [긴급 현안분석] 조국 관련 온라인 빅데이터(19.08.19 ~ 19.09.04, 17일) 결과 댓글의 부정 키워드 비율 77.9%로 온라인 민심이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남

- 여의도연구원과 박성중의원(서초을)은 지난 15개월(18.5.1~19.7.31)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된 뉴스 기사 60만 건과 댓글 4천2백만 건을 빅데이터 분석하였음. 이번 분석에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하기 위해 빅데이터 전문분석 업체가 수집부터 분석까지 전담하였으며,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를 받음.
-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된 60만 건 기사의 제목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 100건 중 1위는 '정상회담(1만5천 건)' 이었으며, 2위는 '평양(1만3천 건)' 3위는 '김정은(1만2천 건)' 등으로 북한 관련 키워드의 비중이 43%에 달했음. '경제'와 '민생' 관련 키워드는 각각 13%, 6%에 그쳤음. 이는 文 대통령이 북한에 편중된 행보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보도일시	2019.9.20. 오전 10시
------	----------------------

- 키워드 긍·부정 빅데이터 결과, 뉴스 기사에서는 긍·부정 비중이 44%대 55%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댓글에서는 긍정 30.1%, 부정 69.9%로 2배 이상 현저한 차이를 보였음. 특히 댓글 키워드 언급량 상위권에는 ‘못하다(84만 235건)’, ‘문재양(71만3309건)’, ‘독재(36만1487건)’과 같은 부정적 평가가 담긴 단어의 비중이 높았음.
- 또한, 여의도연구원과 박성중 의원은 조국 논란 관련 긴급 현안 빅데이터도 진행하였음. 조국 장관 임명 전인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4일까지 17일 동안 포털 뉴스와 댓글, SNS, 커뮤니티와 블로그에서 ‘조국’이 언급된 228만3062건의 게시물과 댓글 202만1633건을 분석하였음.
- ‘조국’ 키워드가 포함된 뉴스 댓글에서는 부정적 키워드 비중이 77.9%에 달했으며, 연관 키워드 상위권에는 ‘청문회(2만6천건)’, ‘의혹(7천건)’등의 단어가 올랐음. ‘정유라’도 3천687건의 언급량 기록하며 상위 17위에 오름. 이는 국민이 조국 의혹에 대해 ‘정유라’와 비교하며 언급하고 있음을 나타냄. 또한, 지난 9월 2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을 전후로 온라인 민심의 변화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였음. 기자회견 전 긍정 언급량은 36.3%, 부정 언급량은 63.7%의 비율을 보였으나, 기자회견 이후에는 오히려 부정 언급량이 2% 증가하여 65.7%를 기록함. 대국민 기자회견이 온라인 민심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이번 연구는 여의도연구원의 ‘문재인 대통령 빅데이터 시리즈 3탄’으로, 첫 번째는 작년 11월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 글 - 연설문·耑브리핑 1453건 빅데이터’로 대통령이 ‘경제’보다 ‘북한’이 우선이었음을 밝힌 바 있음. 두 번째 빅데이터 연구는 올해 1월 박성중 의원과 공동 분석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600일 일정 빅데이터’로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가 밝힌 공개일정을 전수 조사하여, 일정의 75%가 청와대 내부로 “방콕 대통령”, 1800끼니 중 식사 회동 단 100회인 “혼밥 대통령”을 지적한 바 있음.

-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번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만 보고, 북한만 말했던 것을 알 수 있었고, 댓글 민심을 통해 국민의 속마음은 그런 문 대통령에게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담은 표현을 내뱉은 상황에 이른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여의도연구원이 분석했던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방향을 알 수 있는 연설문 빅데이터, 대통령의 관심을 알 수 있는 일정 빅데이터에 이어, 이번 언론과 댓글을 빅데이터를 통해 본 결과까지 모두 같은 결론을 말하고 있다. 바로 대통령의 ‘북한바라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는 ‘불통 대통령’의 길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공동연구를 진행한 박성중 의원은 “언론이 본 문재인 대통령 역시 ‘북한편애’였다. 민생을 저버리고 북한만 바라보는 문 대통령에 대해 국민은 실망을 넘어 절망으로 가고 있다. 약 4천 7백만 건의 게시물 분석을 통해 본 국민의 목소리는 ‘못하다’, ‘문재앙’, ‘쇼’, ‘무능’ 등 분노에 찬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 민생을 저버린 대통령에 한 줄기 희망조차 보이지 않아 참담한 심정이다.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국민을 이기는 대통령은 없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을 이기려 하지 마라” 고 밝히면서 “조국에 대한 국민적 분노도 이번엔 여실히 드러났다. 17일이라는 짧은 분석 기간에도 불구하고 무려 430만 건의 게시물과 댓글이 발생했다는 것은 ‘조로남불’이 국민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알 수 있다. 조국이 있어야 할 곳은 법무부 장관실이 아니라 검찰 조사실이다. 국민은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 조국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 특징]

첫째, 文 언급된 뉴스 제목 키워드 언급량 상위 100개 중 43%가 “북한” 관련 키워드
 - ‘경제’ 13%, ‘민생’ 6%에 불과해 북한에 편중된 행보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둘째, 댓글 키워드 분석 시, 긍정 30.1%, 부정 69.9%

- ‘못하다(84만235건)’, ‘문재앙(71만3309건)’, ‘빨갱이(62만3820건)’, ‘독재(36만1487건)’, ‘쇼(33만1426건)’, ‘무능(28만9209건)’등 단어가 상위권에 발현되어 文대통령을 바라보는 민심의 평가가 상당히 부정적임을 알 수 있음

셋째, 댓글 많은 뉴스 Top10 분석 결과 文정권 비판 또는 경제 관련 기사가 대다수

- 뉴스 제목에서 '좌파', '독재' 등이 언급된 기사가 많았으며,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기사는 18년 11월 5일 자 “강연재‘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좌파 정권 ’개판“로 댓글 4만880건 기록

넷째, 조국에 대한 온라인 민심 “부정 언급량 77.9%”로 매우 부정적

- 조국 관련 기사의 댓글 키워드 빅데이터 결과, 부정 언급량 77.9로 긍정 22%의 3배 이상 차지함. 연관 키워드 상위권에는 △의혹(7386건) △특검(4401) △사퇴(4021) △정유라(3587)등이 차지하는 등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을 알 수 있음

별첨. 문재인 대통령·조국 온라인 빅데이터 보고서.pdf

<끝.>